

## 아제르바이잔, 급변하는 남캅카스 지정학의 중심축

### 임명묵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 석사 과정

현재 대학원에서 아제르바이잔 현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필자는 현지 경험을 쌓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3주 동안 아제르바이잔에 체류했다. 두바이 공항에서 바쿠의 관문 헤이다르 알리에프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아랍인이나 러시아인은 물론이고 파키스탄인과 인도네시아인 등 여타 이슬람 국가 시민으로 붐벼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바쿠의 위상을 미리 실감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아제르바이잔 어디를 가도 2월 7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선거에서 여당 신아제르바이잔 소속의 일함 알리에프가 92%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얻어 5연임을 달성했다. 현재 알리에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년 이상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한 전임 대통령이자 아버지인 헤이다르 알리에프 시기까지 포함하면 30년 이상 알리에프 부자에 의한 통치가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이 부자 승계의 정치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알리에프 가문이 얻는 높은 지지와 정치적 안정성의 근원은 무엇일까?

1991년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독립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탈소 국가들 거의 전부가 독립 이후 혼란을 겪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해체 이전 1988년부터 진행 중이던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했다. 전쟁은 아제르바이잔 속의 아르메니아계 자치주인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예레반의 아르메니아 정부로 귀

속을 선언하자 바쿠의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반발하면서 시작됐고, 러시아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이 전쟁의 혼란 속에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던 러시아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이 탈출하고, 대신에 아르메니아에서 쫓겨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난민으로 유입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1차 카라바흐 전쟁 당시 아제르바이잔군 병사들 (출처: 위키피디아)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군이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독립 직후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지도력 또한 위기를 맞이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아야즈 무탈리보프,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아불파즈 엘치베이가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재임 기간에서 보이듯이 누구도 카라바흐 전쟁을 비롯한 각종 난맥을 해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히체반에 은거하고 있었



던 헤이다르 알리에프가 1993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KGB 출신으로서 일찍이 1970년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시절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당서기를 맡았던 헤이다르 알리에프는 오랫동안 축적해 온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 관료와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냈다. 이를 통해 알리에프는 우선 승리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 카라바흐 전쟁에서 휴전 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주는 물론이고 그 바깥의 인접 아제르바이잔 영토까지 아르메니아가 새롭게 설립한 미승인국 '아르차흐 공화국'이 점거하게 되었지만, 알리에프 대통령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국가 재건 전략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갔다.

아제르바이잔의 국가 전략은 카스피해의 천연가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우호국을 확보하고 아르메니아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언어적, 민족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우방인 튀르키예와 형제국과 거의 다름없는 협력 관계를 맺었고, 튀르키예는 모든 사안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는 지역 강국이 되어 주었다. 알리에프는 또한 전임 엘치베이 시기에 약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같은 KGB 출신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인적 유대 관계도 쌓을 수 있었다.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은 서구와도 우호적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기반이었다. 프랑스와 미국에는 아르메니아계 디아스포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친아르메니아 여론이 일정 정도 존재했다. 그러나 2006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천연가스 분쟁으로 가스 공급을 동결하면서 서유럽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관심이 크게 쏠렸고, 러시아 통제 아래의 파이프라인을 우회하는 공급망을 찾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튀르키예, 지중해, 발칸반도를 거쳐 들어오는 수입선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아르메니아를 우회하는 BTC(바쿠-트빌리시-제이한(튀르키예)) 파이프라인은 유럽과 이스라엘 시장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영향력을 크게 늘려주어 오늘날에도 헤이다르 알리에프 최대의 치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튀르키예, 러시아, 유럽연합(EU) 모두를 끌어들이는 아제르바이잔과 달리 아르메니아는 승전 이후에 오히려 고립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포위된 내륙국 아르메니아는 육상 무역로를 오로지 조지아에만 의존해야 했고, 소련 시절 무역의 요충지로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캅카스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아르메니아에 관여하는 러시아와 전통적 우방국 이란의 존재로 숨통은 트일 수 있었지만, 에너지 수출로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아제르바이잔과 국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었다.

2003년 헤이다르 알리에프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일함 알리에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자 승계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하계도 일함 알리에프는 아버지의 정책 대부분을 계승하여, 튀르키예를 형제국으로 두고 러시아와 서유럽 모두와 선린 관계를 유지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4년 원자재 폭락으로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하는 아제르바이잔 경제도 큰 타격을 입기는 했으나, 유라시아 서쪽으로 접근하는 중국과 경제 관계를 개척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2019년에는 노년층 엘리트층을 은퇴시키고 젊은 인재들을 대거 기용하여 세대교체를 통해 청년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했다.



헤이다르 알리에프 전 대통령(재임기: 1993~2003)과 그의 아들 일함 알리에프 현 대통령(재임기: 2003~현재) (출처: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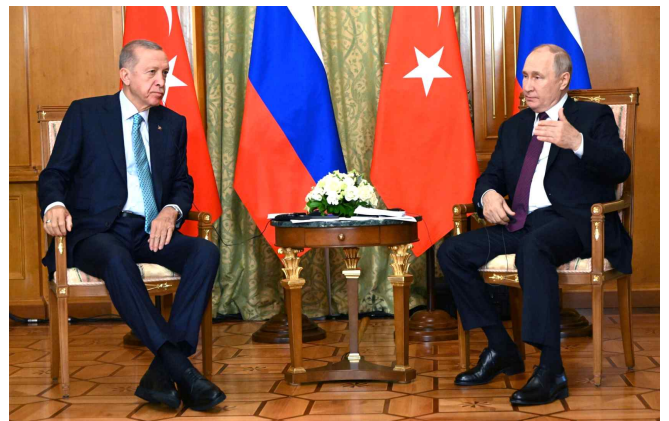
2018년 속적 아르메니아에서 색깔 혁명이 일어나 친러 성향 정부가 무너지고, 친서방 성향의 니콜 파시냘 정부가 들어서자, 아제르바이잔은 이 기회를 활용키로 했다. 아르메니아 굶리에는 러시아군 기지가 있어서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을

역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아르메니아가 친서방으로 경도되자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보호해 줄 필요를 더는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혈맹 튀르키예군의 바이락타르 드론을 지원받은 아제르바이잔군은 2020년 발발한 제2차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군을 압도하여 30년 전의 패배에 복수할 수 있었다. 2023년에도 아제르바이잔군은 추가 군사 행동을 통해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정부 아르차흐 공화국을 아예 멸망시키고, 카라바흐 지역 전체를 다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통제 아래 두기에 이르렀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어디를 가도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땅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승전을 축하하는 포스터나 지난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순교자로서 기리는 보훈 기념물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튀르키예 병사와 아제르바이잔 병사가 각자의 국기 아래 서서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포스터도 있었다. 헤이다르 알리에프의 친선 외교 정책을 계승하여 국가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숙원인 카라바흐 수복까지 이뤄냈으니 일할 알리에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도 필자가 현지인들에게 ‘혹시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나’라고 물어보기라도 하면 대다수 사람이 ‘당연히 알리에프’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캅카스 지정학의 복잡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구는 러시아에 인접한 탈소 지역에서 러시아 제재와 봉쇄에 협력할 국가들을 물색했다. 러시아는 반대로 자국에 필요한 상품을 우회 수출할 통로로 근외 국가들을 활용해야 했다. 캅카스 또한 서구와 러시아 사이 줄다리기의 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으로서 러시아에 적대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의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는 러시아에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헤이다르 알리에프 시기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와의 협력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여전히 아제르바이잔의 핵심 무역 상대국이고, 인적 교류도 상당하다. 많은 아제르바이잔인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관광객들은 매일 바쿠를 찾는다. 아제르바이잔에 서구는 너무나 먼 반면 러시아는 너무나 가까웠다. 아제르바이잔의 혈맹인 튀르키예 또한 2023

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되고, 서구에 대항하고 러시아와 우호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매우 중요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4일 러시아 소치에서 만나 회담했다.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한편, 전쟁에서 패배한 아르메니아가 서구에 밀착하기 시작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러시아 무용론이 발호하기 시작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지정학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접근하여 올해 2월 아르메니아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프랑스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지만 재정 지원을 통해 아르메니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친서방 니콜 파시냔 총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 6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의 친서방 정책은 지역 정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서구에서 아르메니아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캅카스의 조지아는 집권 여당 ‘조지아의 꿈’ 정부가 친러시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서구와 아르메니아의 계획에 차질을 빚어냈다. ‘조지아의 꿈’ 정부는 외국에서 지원을 받는 언론과 단체를 외국영향단체로 등록할 것을 의무화한 ‘외국 대리인(에이전트)’ 법에 더하여 가족 가치를 강조하고 성소수자(LGBTQ)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서구와 관계가 악화했다. 반대로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와의 항공편 복원과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을 시도

하며 모스크바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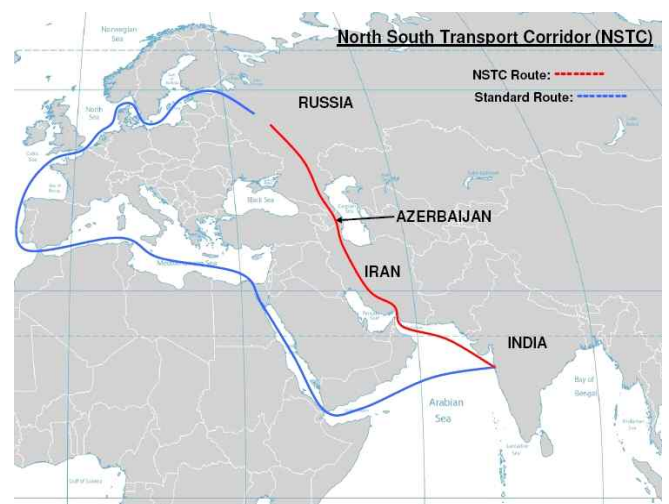
서방이 아르메니아를 지원하자 아제르바이잔은 서방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아르메니아를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카라바흐 영토를 모두 수복했음에도 아르메니아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국 월경지 나히체반과 아제르바이잔 본토를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중간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잔게주르 지역 도로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이 도로를 열었을 때 자국 안보와 주권, 독립성이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태다. 아르메니아가 '서부 아제르바이잔'에 불과하다는 아제르바이잔 내 팽창주의자들의 공공연한 발언 역시 아르메니아를 불안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제르바이잔은 서방, 특히 프랑스를 비난하고 대신에 러시아에 훨씬 더 가깝게 밀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최근 자국의 태평양 도서 영토인 누벨칼레도니에서 분리주의 소요가 발생하자, 프랑스에 원한을 품은 아제르바이잔이 배후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아제르바이잔은 근거 없는 중상이라고 반박했으나, 이 사건은 현재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서구-아제르바이잔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아르메니아의 서방 경도는 전통적인 아르메니아 우호국인 이란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란은 본래 북서부의 대규모 이란계 아제르바이잔 인구의 존재와 분리주의 문제 때문에 북쪽의 아제르바이잔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신 이란은 자국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온 아르메니아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역시 아제르바이잔 견제 차원에서라도 아르메니아 정부를 꾸준히 지원해 온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적대하고 있는 서구를 캅카스 지정학에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은 이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으로 여겨졌다. 이란 역시 아르메니아에 불만을 표하면서 대신에 아제르바이잔과 관계 회복을 추진했다. 얼마 전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이란의 예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과 국경 지역에서 회담을 나누고 돌아오

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와는 별개로 이미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우호 협력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캅카스 지정학은 크렘린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캅카스는 예로부터 문명의 교차로로서 주요 강대국들의 물산이 오가는 핵심적인 교역로였다. 주요 유라시아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실크로드의 부활을 외치는 오늘날 캅카스에 새로운 물류, 운송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었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취하고 이란과 관계가 꺾기려웠던 아제르바이잔은 본래 튀르키예에서 카스피해를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동서 횡축을 선호해 왔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가 친서방으로 향하자, 아제르바이잔은 친러시아, 이란은 친아제르바이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러시아에서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이란으로 통하는 남북 종축 교역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했다. 올 6월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을 연결하는 철도가 영업을 시작하며 러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로 등장했다. 서구가



러시아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을 거쳐 인도로 이어지는 국제남북운송회랑 (출처: 위키피디아)

주도하는 교역로 대신에 유라시아 자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러시아로서는, 더 나아가 일대일로를 밀어붙이는 중국으로서도 지정학적 요충지 아제르바이잔의 합류는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반면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인 조지아가 친



러로 향하고, 아르메니아 자체의 친서방 경도로 전통적 우호국 이란을 잃게 되면서 아르메니아의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그래도 러시아에 실망하고 서구화에 기대를 거는 아르메니아는 우선 현재의 정책 기초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심산인 듯하다.

어쨌든 종합하면, 헤이다르 알리예프를 계승한 아들 일함 알리예프의 전략은 아제르바이잔의 지정학적 몸값을 계속해서 높이며 안정적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튀르키예와 연결을 추구하고 아르메니아를 포위하며, 최대한 많은 우호국을 마련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역내 안보 환경의 급변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자국의 지정학적 위상 자체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단순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만 의존하는 ‘오일머니’ 국가가 아니라 튀르키예, 러시아, 이란, 중국, 인도를 매개하는 ‘실크로드의 중심’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부자 세습의 독재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지만, 알리예프 부자가 30년 전의 패배를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면 그들이 받는 높은 지지에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